

1. Chapter 7 현금과 내부통제

1) 기업활동과 유동성

- **유동성**: 자산을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정도.
- 기업은 이익이 나도 현금이 없으면 **흑자도산** 가능 → 당기순이익(발생주의)과 현금흐름(현금주의)이 다르기 때문.

2) 현금 및 현금성자산

1. 현금

- 지폐·동전
- 요구불예금(당좌예금, 보통예금)
- 통화대용증권(타인발행수표, 우편환, 배당금지급통지서 등)

2. 현금성자산 (cash equivalents)

- 취득 당시 만기가 **3개월 이내**인 단기금융상품
- 고정된 금액으로 전환이 거의 확실
-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격위험이 중요하지 않음

3. **단기금융자산**: 만기 1년 이내 단기채권(정기예금, CD 등). 현금성자산보다 만기가 길.

3) 내부통제(Internal Control)의 목적과 원칙

• 목적

1. 자산 보호
2.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
3. 업무의 효율적·효과적 운영
4. 법규 준수

• 기본 원칙(시험 단골)

- 업무분장(한 사람이 승인+집행+기록 모두 하지 못하게)
- 승인·인가 절차
- 적절한 문서화와 문서번호 통제
- 자산 보관 담당자와 회계기록 담당자 분리
- 정기적인 내부·외부감사 및 독립적 검토

4) 현금에 대한 내부통제

1. 소액현금제도(임프레스트 시스템)

- 소액지출은 소액현금으로 결제, 일정 기간 후 한 번에 보충
- “소액현금 계정잔액 = 항상 일정”이 포인트

2. 당좌예금의 통제와 은행계정조정표

- 기업 장부잔액 ≠ 은행잔액인 이유: 미인출수표, 미기록입금, 은행수수료, 부도수표, 오류 등
- **은행계정조정표의 목적:** 두 잔액의 차이를 분석해 **실제 현금잔액**을 확인하는 것.
- 틀을 외워두기:
 - 기업 측 조정: 은행수수료, 이자수익, 기업 오류 등
 - 은행 측 조정: 미인출수표(-), 미기록입금(+), 은행 오류 등

5) 회계부정과 경영윤리

- **부정의 3요소(사기의 삼각형)**
 1. 동기(재정압박, 성과압박)
 2. 기회(통제 약함, 권한남용)
 3. 정당화("어쩔 수 없었다"는 자기합리화)
 - 예방정책: 강한 내부통제, 윤리경영, 신고제도(제보자 보호), 충분한 휴가·직무순환 등.
-

2. Chapter 8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

1) 기본 개념

- **수취채권(receivables):** 상품·용역을 제공하고 **돈 받을 권리**
 - 매출채권: 외상매출금, 받을어음 (주된 영업활동)
 - 기타수취채권: 미수금, 단기·장기대여금 등
- **지급채무(payables):** 물건·용역을 받고 **돈 줄 의무**
 - 매입채무: 외상매입금, 지급어음
 - 기타지급채무: 미지급금, 단기차입금 등

2) 매출채권의 발생과 순매출액

- **매출 발생 시:**
 - 매출채권 / 매출
 - 매출원가 / 재고자산
- **순매출액 = 총매출액 - (매출에누리 + 매출환입 + 매출할인)**

3) 대손과 대손상각비

- **대손(bad debts):** 거래처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 손실
- **대손상각비:** 기간비용(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영업외비용)

(1) 직접상각법 – 시험에서 “원칙 아님” 강조

- 실제로 회수불능이 확정될 때만 비용 인식 → 대손상각비 / 매출채권

- 문제점:
 - 손실 인식 시점이 늦어 수익·비용 대응 원칙 위배
 -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이 과대계상
- K-IFRS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(예외적 상황 제외).

(2) 층당금설정법 – 시험의 기본

- 결산 시점에 “미래 예상 대손”을 미리 비용으로 인식
- 분개(대손 추정 인식):
 - 대손상각비 / 대손총당금
- 실제 대손확정시:
 - 대손총당금 / 매출채권
- 대손회수시(예전에 대손 처리한 채권이 다시 들어옴):
 - 매출채권 / 대손총당금 (역분개)
 - 현금 / 매출채권 → 실무에서는 ‘대손총당금환입’ 등으로 단일분개도 가능.
- 대손총당금 계정 분석
 - 기초대손총당금
 - (+) 당기 대손상각비(새로 설정한 추정액)
 - (-) 대손확정액
 - = 기말대손총당금

4) 매출채권의 손상평가

- 일정 기간마다 **손상검사(impairment test)**를 수행
- 거래처의 지불능력, 경기상황 등을 반영해 손실 가능성을 판단.

5) 수취채권의 매각

1. 신용카드 매출
 - 고객 → 카드사 → 회사로 대금 입금
 - 회사 입장:
 - 수수료 =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하기 위한 비용(판매비와 관리비)
2. 팩토링(factoring)
 - 수취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고,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 수령
 -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받는 대신 수수료·이자 비용 부담

6) 어음 (받을어음·지급어음)

- 구성요소: 액면금액, 만기, 이자율
 - **이자부 어음**: 액면금액에 이자율 적용, 이자 따로 지급
 - **무이자부 어음**: 액면금액 자체에 이자 포함 → 현재가치로 인식, 차이는 이자비용
 - **어음할인**:
 - 은행에 만기 전 어음을 넘기고 현금 받음
 - 장부금액 - 은행지급액 = 어음할인료(이자비용)
-

3. Chapter 9 재고자산

1) 재고자산의 정의와 종류

- 기업의 정상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, 생산 중, 생산에 사용할 자산들
- 예시:
 - 상품, 제품, 반제품, 원재료, 저장품 등
- 모두 재무상태표에서 **유동자산**으로 분류.

2) “누구의 재고인가?” – 소유권 판단

- 핵심 기준: **위험과 보상의 이전(경제적 효익 부담)**
 - 미착상품: FOB 발송지/도착지 조건에 따라 누구 재고인지 결정
 - 위탁상품: 위탁자(상품을 맡긴 쪽)의 재고
 - 시용상품: 최종 구매의사 표시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
 - 할부판매상품: 실질적으로 위험·보상이 이전되면 구매자 재고

3) 수량결정 – 계속기록법 vs 실지재고조사법

1. 계속기록법(perpetual)

- 기초재고 + 매입 - 판매 = 장부상의 기말재고수량
- 판매 시마다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을 동시에 인식

2. 실지재고조사법(periodic)

- 기초재고 + 매입 - **실사한 기말재고** = 매출수량
- 매출원가를 기말에 일괄 계산

3. 두 방법 병행 시:

- 계속기록법상의 기말재고 - 실사기말재고 = **재고감모수량**
- 재고감모손실 = (감모수량 × 단가)

4)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관계

- 공식: **기초재고 + 당기매입 - 기말재고 = 매출원가**

- 손익계산서: 매출액 – 매출원가 = 매출총이익

5) 원가결정 (단위당 단가 P 결정)

- 공통틀: **매출원가(또는 기말재고원가) = 수량(Q) × 단가(P)**
- 방법 4가지:
 - 개별법
 - 가중평균법(총평균법, 이동평균법)
 - 선입선출법(FIFO)
 - 후입선출법(LIFO – 한국기준에서 실제 사용X, 개념 이해용)
- 가격 상승기 효과(암기):
 - FIFO: 기말재고 ↑, 매출원가 ↓, 이익·세금 ↑
 - LIFO: 기말재고 ↓, 매출원가 ↑, 이익·세금 ↓
 - 평균법: 중간값

6) 재고원가 추정방법

- 매출총이익법** (재무제표 목적 사용금지, 추정용)
 - 과거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추정
- 소매재고법** (다품종·소매업에 사용 가능)
 - 매가 기준 장부를 가지고
 - 원가율 = $(\text{기초재고원가} + \text{매입원가}) / (\text{기초재고매가} + \text{매입매가})$
 - 기말재고매가 × 원가율 = 기말재고원가

7) 재고자산 저가법(Lower of Cost and NRV)

- 평가 기준:** 재고자산은 **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(NRV)**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.
 - $NRV = \text{예상판매가격} - (\text{추가완성}\cdot\text{판매비용})$
- 평가순실 인식:**
 - 재고자산평가순실 / 재고자산 (또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)
- 보수주의 실현:** 가치하락을 조기에 비용 인식.

8) 재고 오류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

- 전기 기말재고 과대:**
 - 전기: 매출원가 **과소**, 당기순이익 **과대**
 - 당기(다음해): 기초재고 과대 → 매출원가 과대 → 당기순이익 과소
- 2개년도 합산 이익은 정상치와 동일(상쇄됨).

4. Chapter 10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

1)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

- 정의
 - 생산·용역제공·임대 또는 관리 목적
 - 1년을 초과하여 사용
 -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
- 인식요건
 1.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높음
 2.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

2) 취득원가 결정

- 공통 원칙: 자산을 현재 상태·장소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출
 - 구입가액 – 매입할인 – 환출 + 관세 + 취득세 + 등록세 + 중개수수료 + 운반·설치비 + 해체·복구 추정비 등
- 특수 케이스
 1. 토지·건물 일괄구입
 - 총 취득원가를 양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로 분배
 2. 장기할부취득: 현재가치로 인식, 차이는 이자비용
 3. 무상·교환취득: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

3) 취득 후 지출 – 기본적 vs 수익적 지출

- 기본적 지출
 - 성능·능력 증가, 내용연수 연장, 생산능력 증가, 품질·안전성 개선 → 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 후 추가 감가상각
- 수익적 지출
 - 단순 수선·보수 등 현재 상태 유지 → 발생 시점에 비용처리(수선비 등)

4) 감가상각

- 의미: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대상금액(취득원가–잔존가치)을 체계적으로 비용 배분하는 것
- 감가상각 3요소
 1. 취득원가
 2. 잔존가치
 3.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

• 주요 방법 및 공식

1. 정액법

- 매년 상각비 = (취득원가 – 잔존가치) / 내용연수

2. 정률법(체감잔액법)

- 매년 상각비 = 기초장부금액 × 일정 상각률

3. 연수합계법

- 연수합계 = $n(n+1)/2$
- 연도별 상각비 = 감가상각대상금액 × (잔여연수 / 연수합계)

4. 생산량비례법

- 상각비 = (취득원가 – 잔존가치) × 당기생산량 / 예정총생산량

• 장부금액(book value) = 취득원가 – 감가상각누계액 – 손상누계액

5) 취득 후 평가 – 원가모형 vs 재평가모형

1. 원가모형

- 장부금액 = 취득원가 – 감가상각누계액 – 손상누계액
- 회수가능액 < 장부금액 → 손상차손 인식
- 이후 회수가능액 회복 시, 손상차손 환입(단, 손상 전 장부금액 한도)

2. 재평가모형

- 자산을 정기적으로 공정가치로 재평가
- 증가분: 기타포괄손익 – 재평가잉여금
- 감소분: 재평가잉여금과 상계 후 초과분은 당기손익(재평가손실)

6) 처분손익

• 처분손익 = 처분대금 – 처분 시점 장부금액

- 양수이면 처분이익, 음수이면 처분손실

7) 무형자산

• 예: 특허권, 소프트웨어, 상표권, 라이선스, 개발비(조건 충족 시) 등

• 인식요건: 식별 가능성, 통제, 미래 경제적 효익, 원가 측정 가능

• 상각

- 유한 내용연수: 정액법 등으로 상각
- 무한 내용연수: 상각X, 매년 손상검사

5. Chapter 12 비유동부채

1) 부채의 정의와 분류

- **부채**: 과거 사건으로 발생한 현재의무, 미래에 경제적 자원(현금 등)을 이전해야 함.
- **유동부채**: 정상영업주기 내 또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 예정 (매입채무, 단기차입금 등)
- **비유동부채**: 사채, 장기차입금, 장기충당부채, 퇴직급여부채 등

2) 현재가치(PV) 개념과 회계적 활용

- 미래 1원은 지금의 1원보다 가치가 낮음 → 이자율·기간만큼 할인
- 단일금액 현재가치 / 연금(annuity) 현재가치 표를 사용해 계산
- 적용 분야
 - 사채 발행가액 결정
 - 장기채무(장기할부, 장기차입금) 평가
 - 충당부채(복구충당부채 등) 평가

3) 사채(Bonds)

1. 기본 구조

- 액면금액(원금)
- 액면이자율(표시이자율, 쿠폰률)
- 시장이자율(유효이자율)
- 만기일, 이자지급일

2. 발행금액 결정

- 미래 현금흐름 = 매기 이자 + 만기 원금
- 이들을 **발행시점 시장이자율**로 할인한 합계 = 발행가액
- 시장이자율 > 표시이자율 → **할인발행**(발행가액 < 액면)
- 시장이자율 < 표시이자율 → **할증발행**(발행가액 > 액면)

3.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

- 매기 이자비용 = 기초장부금액 × 시장이자율(유효이자율)
- 실제 지급 현금이자 = 액면금액 × 표시이자율
- 둘의 차이 = 할인 또는 할증발행차금의 상각액
 - 할인발행: 이자비용 > 현금이자 ⇒ 할인발행차금 상각(장부금액 증가)
 - 할증발행: 이자비용 < 현금이자 ⇒ 할증발행차금 상각(장부금액 감소)
- 만기 시 장부금액은 항상 액면금액에 수렴

4. 사채 상환

- **만기상환**: 만기일에 액면금액 상환, 장부금액=액면금액
- **조기상환(중도상환)**
 - 상환액과 장부금액 차이 = 사채상환이익/손실

4) 충당부채·우발부채·기타 비유동부채

1. 충당부채(Provision)

- 조건(4개 키워드):
 1. 과거 사건으로 인한 **현재의무**
 2. 의무 이행 위해 자원 유출 가능성이 **높음**
 3. 금액을 **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**
 4. 시기·금액은 불확실 → 부채로 인식(필요시 현재가치로 측정)

2. 우발부채(Contingent liability)

- 현재의무가 아니거나, 자원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거나,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불가 → 부채로 인식X, 주석공시만

3. 기타 비유동부채

- 장기차입금, 장기미지급금, 임대보증금, 장기예수보증금 등

5) 퇴직급여채무(개념 잡기 수준)

- **확정급여형(DB)**: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, 회사가 급여지급 책임 부담
- **확정기여형(DC)**: 회사는 일정액만 부담하고, 향후 퇴직급여 수준은 근로자가 부담(투자성과에 따라 변동)

6. 전체 흐름으로 다시 한 번 정리 (시험 대비 관점)

1. 재무상태표 구조 연결

- 자산: 현금및현금성자산 → 수취채권 → 재고자산 → 유형·무형자산
- 부채: 지급채무·단기차입금(유동부채) → 사채·장기차입금·충당부채·퇴직급여채무(비유동부채)

2. 공통 개념 총

- **시간가치**: 현재가치(사채, 장기채무, 충당부채)
- **손상·대손·저가법**:
 - **채권**: 대손충당금
 - **재고**: 저가법(원가 vs NRV)
 - **유형·무형자산**: 손상차손·환입
- **내부통제**: 현금·재고·채권을 둘러싼 통제장치(은행계정조정표, 감모손실 파악 등)

3. 계산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공식 모음

- 매출원가 = 기초재고 + 당기매입 – 기말재고
- 감가상각비(정액/정률/연수합계/생산량비례)
- 사채 발행가 = 이자연금 PV + 액면금액 PV
- 유효이자율법: 이자비용 = 기초장부금액 × 시장이자율